

독서 활동 노트

프레시타,

난민을

위한

노래

* 프레시타 토리 잔 지음 권가비 옮김



학생용

무엇이 담겨 있을까?	◆ 2
이렇게 읽었어요	◆ 3
인물 집중 탐구	◆ 4
나의 경험과 관련 짓기	◆ 6
주인공의 마음 읽기	◆ 8
응원의 편지 쓰기	◆ 10
세계는 지금	◆ 11



책을 읽기 전 표지를 살펴보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1. 표지를 보고, 이 책의 내용을 짐작해 보세요.
2. ‘난민’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아는 만큼 적어 보세요.
3. 하자라족은 어떤 민족인가요? 어디서 살고 어떤 특징을 지녔는지 조사해서 정리해 보세요.

① 사는 곳:

② 특징:

1.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옮겨 쓰세요.
2. 위 내용이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가요?
4.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1. 아래 문장에 있는 빈칸을 채워 보세요.

프레시타는 아프가니스탄의 ()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유적이 많은 예술의 도시이지요. 그러나 네 살 때 고향을 떠나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인 ()로 도망가야 했어요. 이슬람 무장 단체 ()의 공격 때문이에요. 아프가니스탄의 주류 민족인 ()족은 소수민족인 ()족을 죽이고 내쫓았어요.

2. 아프가니스탄의 주류 민족은 왜 소수민족인 하자라족을 공격했나요?

3. 프레시타의 아버지는 왜 몸이 아팠나요?

4. 프레시타는 고통받는 고국의 가족을 위해 미국에서 어떤 행동을 했나요?

1. 프레시타는 '소수' 민족이라는 이유로 다수 민족에게 박해받았어요. 소수이기 때문에 다수에게 차별받는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소수자가 차별받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2. 위에서 말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다음 본문의 내용을 읽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먼저 떠나간 이들의 몫만큼 나는 계속 투쟁할 것이다. 그것만이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

여러분도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그건 순전히 스스로에게 달려있다고 말해 주고 싶다. 인종차별이나 박해와 억압을 물리치고, 자유와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난과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닐 것이다. 그저 침묵을 지킨다면 개혁과 변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머뭇거리면 너무 늦어 버릴지도 모른다.

— 본문 111~112쪽

1. 프레시타가 말하는 ‘자유와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
2. 만약 아무도 세상을 바꾸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침묵을 지킨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세요.

읽은 후 5 응원편지 쓰기

현재 프레시타는 하자라족이 받는 박해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라족이 겪은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아프가니스탄의 원조를 요청하는 일도 하고 있지요. 프레시타에게 응원 의 편지를 써주세요.

아래 기사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하자라족은 100년이 넘는 탄압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유독 지금 “지옥의 바닥엔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말한다. 하자라족을 탄압하던 주요 단체 중 하나인 탈레반이 지난해부터 아프간을 재장악하면서부터다. … 탈레반의 재집권 이후 하자라족이 다니는 학교·병원·사원 등에서 테러 공격이 급격히 늘면서 하자라족은 신변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탈레반 임시정부는 재집권 후 남학생들의 등교는 허용했지만, 여학생의 등교는 막았다. … 하자라족 여학생들에겐 등교하기 위해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목숨을 건 도박”이다. …

지난 30일 테러 공격이 발생한 이후 하자라족 여성들은 자유와 권리를 요구하면서 저항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50여 명의 하자라족 여성들은 이날 다친 여학생들이 입원한 병원 앞에 모여 “하자라족의 말살을 멈춰라”라고 소리쳤다. … 하자라족은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하자라족의 말살을 멈춰라(StopHazaraGenocide)’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국제 사회에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탈레반 지옥의 가장 낮은 곳에 ‘하자라족 여성’이 있다〉

경향신문, 2022.10.19

1. 위 기사에서 말하는 ‘신변의 안전’은 무슨 뜻인가요?

2. 아프가니스탄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자라족 친구들을 돕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3.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또는 구글에 '#StopHazaraGenocide(하자라족의 말살을 멈춰라)'를 검색해 보세요.

편집자의 말

세상을 바꾸기 위해 나선 아이들

〈빛을 든 아이들〉 시리즈는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이 극심한 역경을 맞닥뜨리고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지난 경험과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주인공들의 삶과 여러분의 삶은 비슷한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가요? 여러분의 삶 또는 이 사회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 편집자들은 독자 여러분이 책에 담긴 한 사람 한 사람의 치열한 삶에 공감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지은이 프레시타 토리 잔

아프가니스탄 헤라트의 하자라족 가정에서 태어났다. 탈레반의 공격을 받아 카불로 피난을 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위험은 끊이지 않았다. 인도로 탈출해 극심한 가난으로 고통받던 와중에 지원했던 미국 기숙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된다. 학살과 테러, 차별과 따돌림을 겪은 후 자신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기 위해 청소년 멘토이자 대중 연설자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이 권가비

고려대학교에서 지리교육과 영어영문학을 공부했고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영어교육을 전공했다. 번역서로 《내 인생 최고의 책》 《용서의 나라》 《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소년의 불꽃》 《멈춰! 기후변화》, 〈익스플로러 아카데미〉 시리즈가 있다.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을 든 아이들〉 시리즈

재난과 참사로 빅 트라우마를 경험한 청소년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변화를 이끌면서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담은 논픽션 시리즈입니다.



**아다마,
테러를 향한 외침**
무슬림 차별에 맞선
소녀 이야기

아다마 바 지움 | 권가비 옮김 |
124쪽 | 13,000원



**프레시타,
난민을 위한 노래**
소수민족의 희망이 된
소녀 이야기

프레시타 토리 잔 지음 |
권가비 옮김 | 128쪽 |
13,000원



**살바도르,
기후위기에 대한 도전**
거대한 재난 속
빛을 든 소년 이야기

살바도르 고메즈 콜론 지음 |
권가비 옮김 | 112쪽 |
13,000원



**프란치,
인종차별을 넘어 행진**
흑인 인권을 드높인
소년 이야기

프란치 루진코트 지음 |
권가비 옮김 | 116쪽 |
13,000원

다른 생각이 다른 세상을 만듭니다.

도서출판 다른은 2004년에 첫발을 내디딘 이래 현재까지 290여 종의 도서를 출간했으며, 다수의 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시교육청, 세종도서 문학나눔 및 교양부문, 책으로따뜻한세상만드는교사들, 행복한아침독서, 어린이도서연구회, 학교도서관저널 등에서 우수도서 및 권장도서로 선정되었습니다.

“다른 생각이 다른 세상을 만든다”라는 믿음으로 생태, 평화, 인권, 나눔에 관한 책을 꾸준히 만들어 온 도서출판 다른은, 오늘도 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청소년 신간 정보와
활동지 자료를 받아 보고 싶다면?



도서출판 다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고통받는 난민을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몰랐던 소수민족 이야기

“내가 속한 하자라족은 아주 오래전부터 아프가니스탄에 살았어요.

여러 인종과 민족이 사이좋게 어울려 살던 시절도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탈레반이 우리의 평화를 앗아 갔어요.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를 죽이고 내쫓았지요.

내가 어디에 있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함께할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뜻하지 않은 고난과 역경은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맞서고 행동할지는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재난, 참사, 차별을 겪고 빅 트라우마를 경험한 십대가 주인공입니다. 그들은 힘들었던 과거를 오히려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위기 앞에서 좌절하고 방황하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장 **심민영**

